



1 오비맥주는 개그맨 김준현이 가진 유쾌한 이미지를 저칼로리 맥주인 카스 라이트와 절묘하게 녹여낸 광고를 선보여 호평 받았다. 2 보혜는 솔직 당당한 2030 여성을 위한 플럼와인 '매이(MAY)'의 모델로 석시 개그우먼 김미려, 안영미, 강유미(왼쪽부터)를 기용했다. 3 롯데주류는 청하 모델을 개그맨 양상국, 김지민, 허경환(왼쪽부터)으로 교체하고, 소비자들과 웃음 교감에 나섰다. 4 더맥키스컴퍼니는 19급 개그의 형제 신동엽을 맥키스 모델로 선정, 제품 특성을 익살스럽게 풀어냈다.



주류 업계 홍보 새 트렌드 “웃겨야 산다”

개그맨 모델 기용해 코믹함 강조

‘매이’ 안영미 등 매이 댄스로 여심 공략
‘카스라이트’ 김준현 세워 저칼로리 강조
‘청하’ 개콘멤버들 모델로 소비자와 교감
‘맥키스’ 신동엽 19급 코드 SNS 인기창

“웃겨야 산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나 여자 가수 모델을 주로 기용해왔던 주류 업계의 홍보 관행이 깨지고 있다. 새로운 트렌드는 바로 개그맨(우먼) 모델 기용이다. 비주얼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소비자와 보다 유쾌하고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개그맨이 홍보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봤다.

●보혜, 플럼와인 ‘매이’ 개그우먼 모델 기용
보혜에서는 20,30 여성을 겨냥한 플럼와인 ‘매이(MAY)’의 모델로 석시 개그우먼

안영미, 김미려, 강유미를 기용했다. ‘매이’의 브랜드 이미지와 이들의 솔직 당당한 이미지가 잘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 모델 선정 이유다. 광고 영상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안영미 매이 댄스’로 불리는 이 영상은 가슴 언저리에 손을 대고 춤을 추는 안영미 특유의 코믹함과 석시코드가 맞물려 유쾌함을 자아낸다.

한편 보혜는 9~10월 사이 3번에 걸쳐 비자 광고 모델 발탁을 위한 ‘매이(MAY) 퀸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1등을 한 여성 소비자 3명을 ‘매이 플럼와인 ‘매이’의 모델로 기용한다. 보혜 관계자는 “개그우먼들은 물론 매이 퀸 콘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소비자 모델과 함께 여심 공략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스 라이트, 김준현 모델로 저칼로리 강조
오비맥주도 개그맨을 홍보의 맨 앞자리에 앉혔다. 오비맥주는 개그맨 김준현을 모델로 저칼로리 맥주의 대명사 ‘카스 라이트’의 제품 특징을 유쾌하게 전달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방영된 ‘이별열차’ 광고

에서 김현준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맥주만은 포기 못한다”는 유행어를 남겼다. 또 다이어트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포기해야 하는 슬픔을 담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소비자들에게 웃음과 저칼로리 맥주의 콘셉트를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스 라이트 관계자는 “김준현이 가진 이미지와 유쾌함이 저칼로리 맥주인 ‘카스 라이트’와 잘 어울린다”며 “앞으로 젊은 소비자들과 카스 라이트만의 유쾌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롯데주류 청하, 청순에서 유머로 시장 공략
청순미 넘치는 여배우만을 모델로 고집해 왔던 롯데주류도 ‘웃음’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롯데주류의 대표 청주 브랜드인 청하도 올해 초 모델을 개그맨 허경환, 김지민, 양상국으로 교체하고, 소비자들과 웃음 교감에 나섰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유머가 담긴 광고를 통해 즐거움 술자리에 어울리는 ‘청하’를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그콘서트 멤버들을 캐스팅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개그맨 양상국과 함께 한 대학가 커피 이벤트, 건진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대학축제 지원프로그램 ‘청하 주막’ 등의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젊은 소비자들과 소통을 강화했다.

●맥키스, 신동엽 통해 홀릭싱주 시장 탈환
더맥키스컴퍼니는 19급 개그의 황제 신동엽을 모델로 제품 특성을 익살스럽게 풀어낸 광고를 선보였다. 인기 케이블 TV 프로그램 ‘SNL’에서 선보인 신동엽의 ‘변태’ 연기가 큰 화제를 낳으면서 유사한 느낌의 광고 영상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광고 속에서 신동엽은 다양한 음료를 섞어 마시는 제품의 특징을 성격 코드에 녹인 여러 상황을 통해 유머러스하게 보여준다. 이 광고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유튜브 조회 수 30만 회를 돌파하는 등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아이들 무한상상 자극 ‘SF 세상’ 펼쳐진다

국제SF영상축제 국립과천과학관서 개막
SF시네마·IT체험존 등 다양한 행사 마련

국내 최대의 과학영상축전인 ‘국제SF영상축제’가 막을 올렸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직무대리 오대석)은 24일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과 이석현 국회의원, 앤드류 가이 ASPAC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국제SF영상축제’ 개막식을 열었다. 국제SF영상축제는 과학과 영상, 문화, 교육이 결합된 종합 에듀테인먼트 축제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는 29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 일대에서 6일간 개최된다.

올해 국제SF영상축제의 주제는 ‘행복·토닥토닥, 세상을 위로하는 감동기술을 만나다’다. ‘SF시네마토크’, ‘외계에서 또다른 지구 찾기’, ‘무한상상 IT체험존’, ‘국제VFX세미나’ 등 30여 가지의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어린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어린이 관람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메인 이벤트 중 하나는 ‘외계에서 또 다른 지구 찾기’다. 국립과천과학관과 한국천문연구원이 공동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천문과학계의 연구 현황과 핵심장비인 첨단 천체 망원경 개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무엇보다 국내외 과학자들이 지난 20년간 외계행성을 찾기 위한 노력과 결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천문우주과학자를 꿈꾸는 미래 꿈나무들에게 더없이 값진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근 기자



또한 이번 국제SF영상축제에서는 SF영화계의 거장들이 제작한 20여 편의 SF영화를 감상한 후 스타 과학자들과 영화의 뒷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아울러 SF영상산업 지망생을 위한 ‘SF시네마토크’도 마련되어 있다.

할리우드 VFX(특수효과, Visual FX) 전문가를 대거 초청해 첨단 VFX 제작기술과 제작 사례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국제VFX세미나’와 ‘청소년국제VFX워크숍’ 등 평소 접하기 힘든 특별한 행사를 통해 SF세계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이밖에 로봇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로봇북 콘서트’와 몸으로 그리는 수채화, 대 목소리와 심장소리에 따라 반응하는 빛 체험 등 증강현실(AR) 세계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무한상상IT체험존’ 등 SF과학의 묘미를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4회 국립과천과학관 국제SF영상축제 홈페이지(www.gis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 F1 타이어 필드 테스트에 참가한 문성학 선수가 테스트용 AUTP GP 머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F1용 타이어 시장 진출 시도

국내업체 최초 F1 타이어 실차 테스트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F1용 타이어 시장진출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스페인 카탈루냐 서킷에서 첫 공식 F1 타이어 실차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향후 F1 진출을 대비한 기술력 검증과 함께 이미 90년대부터 모터스포츠를 통해 축적된 F1 수준의 기술력을 실제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국내업체 중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 F1 타이어 실차 테스트를 실시한 기업은 금호타이어가 처음. 또한 금호타이어는 Auto GP, 마스터즈 F3, 독일 VLN(뉘르부르크링 내구레이스) 등 각종 글로벌 모터스포츠 대회 참가를 통해 실전 노하우와 데이터도 충분히 축적하고 있다. 테스트가 진행된 카탈루냐 서킷

(4.6km)은 다양한 고속 코너와 중고속 코너, 긴 스트레이트, 오르막과 내리막이 골고루 배치된 테스트 장소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번 테스트에는 전 F1 드라이버 나레인 카디안(Narain Karthikeyan), 케빈 지오베시(Kevin Giovesi) 등의 베테랑 선수들이 참가했다. 또한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문성학 선수(23·성균관대4도)도 참가했다. 2011년 한국인 최초로 F2(포뮬러2)에 진출한 문 선수는 금호타이어와 함께 ‘국내 최초 F1 진출’에 도전하는 기대주다.

금호타이어 손봉영 연구본부장은 “F1용 타이어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들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기술 격차가 좁혀졌다. 추후 지속적인 실차 테스트를 실시해 숙원인 F1 진출을 꼭 이뤄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원성열 기자

원데이 치과와 함께하는 아이(齒) 좋아!

돌출입 교정 기간 대폭 감소 원데이 C-임플란트가 대세

돌출입은 화가 나 보이거나 인상이 강해 보이게 한다. 또 ‘노안’으로 비추기 쉽다. 돌출입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흔히 양악수술이나 안면윤곽술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돌출입의 정도에 따라서 위험한 수술 치료를 하지 않고도 이를 치료할 수 있다. 바로 ‘돌출입 교정’이다. 발치를 하지 않고 교정하는 비발치 교정이나 급속교정을 통해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가지런한 치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돌출입 ‘T-Scan3’ ‘C-임플란트’로 완벽 치료

치아교정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치아구조 분석이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구강구조 또한 제각기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치아 구조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정계획을 세워 교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정확한 치아 구조분석을 위해 T-Scan3라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 T-Scan3는 미세량의 오차를 같이 분석해 치아의 이동경로 등을 예측해 보다 성공적인 돌출입 교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돌출입 교정을 거치게 되면 튀어나왔던 치아와 입이 들어가면서 얼굴 측면 라인이 살아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칫 화나 보이고 강해 보였던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게 되며, 전보다 한결 어려 보이는 심미적 효과 또한 관찰할 수 있다.

최근에는 C-임플란트라는 특수 장비를 도입해 치아 교정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C-임플란트를 이용한 돌출입 교정술은 우선 치아의 손상 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돌출입 교정술은 시술 후 만족도 높은 치료법

이러한 돌출입 교정술은 무엇보다 수술 치료를 거치지 않고 교정을 시행하기에 치료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 또 모든 과정은 국소마취를 통해 진행돼 교정 후 붓기나 통증은 거의 없는 효율적인 치료법이다. 원데이치과에서는 C-임플란트를 이용해 돌출입 교정술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한 교정기간의 단축은 환자들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병원을 자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또한 많이 줄어들었다.

돌출입 교정술은 치아 및 구강구조를 개선해 치아의 기능적 문제 개선과 함께 미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정 후 만족도가 높은 치료다. 이러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치아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전문의의 지도 하에 돌출입 교정술을 하는 것이 좋다.

값비싼 검안기 “빌려드립니다”

케이티렌탈, 휴비츠와 MOU…월 40만원대 렌탈

“렌탈 검안기로 새 사업에 도전해 보세요”

케이티렌탈(대표 이희수)은 국내 1위 안경광학기기업체 휴비츠(대표 김현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대상 검안기 렌탈 상품(사진)을 출시했다.

휴비츠는 해외 100개국 약 140여개 대리점을 통해 미국·일본·유럽 등지로 수출되는 국내 대표 안경광학기기 브랜드다.

휴비츠의 검안기는 우수한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이지만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제품 가격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부담이다. 케이티렌탈은 창업 희망자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휴비츠 검안기’ 렌탈 상품을 출시했다.

각막의 굴절 정도를 측정하는 최신형 검안 세트를 36개월 기준 최저 40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 첨단 밀링 커팅 기술로 안경렌즈를 가공하는 렌즈 가공기 세트도 36개월 기준 최저 30만원대의 경제적인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월 렌탈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 법인세 절감 혜택,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절감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 내 A/S 및 B/S(분기당 1회 방문하는 사전서비스)를 무상 보장해 소비자가 렌탈 상품을 언제나 최적의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의사항은 케이티렌탈 콜센터(1577-5100) 및 휴비츠(031-428-9120)에서 상담 가능하다.

원성열 기자

